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인바운드국제화로 글로벌리더 양성하는 연세대

머릿글 속명여대 교수 강정애

2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차동엽

커버스토리 연세대학교 총장 정창영

리더십이야기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 이용희

지자체특강 (재)가나안복지회 이사장 김종일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미래건강수면연구소 소장 오상구

회원&연구원소식

LMI & YOU

Health Info 건강한 식탁 대표 이미숙

Life & Story 농협경제연구소 소장 조연환

조순칼럼

표지인물 정창영 총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7 February

2

등록번호: 12호 [매월]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7년 2월 1일 발행인: 정창영 (연세대학교인간개발연구원(KCHDI)) 주소: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경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선)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디지털포드 www.coof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92 5323



아시아나, 세계 최고 승무원 및 기내서비스상 수상

(Global Traveler誌 & Business Traveler誌 선정)

BEST ONBOARD SERVICE & FLIGHT ATTENDANTS



BEST FLIGHT ATTENDANTS IN THE WORLD



BEST IN-FLIGHT SERVICE IN THE WORLD



Global Traveler誌의 3년 연속 선정에 이어 Business Traveler誌까지- 아시아나가 세계 최고의 기내서비스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서비스로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 Global Traveler Awards

세계적인 여행전문지인 Global Traveler誌가 전 세계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승무원 친절도를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의 상입니다.

▶ Business Traveler 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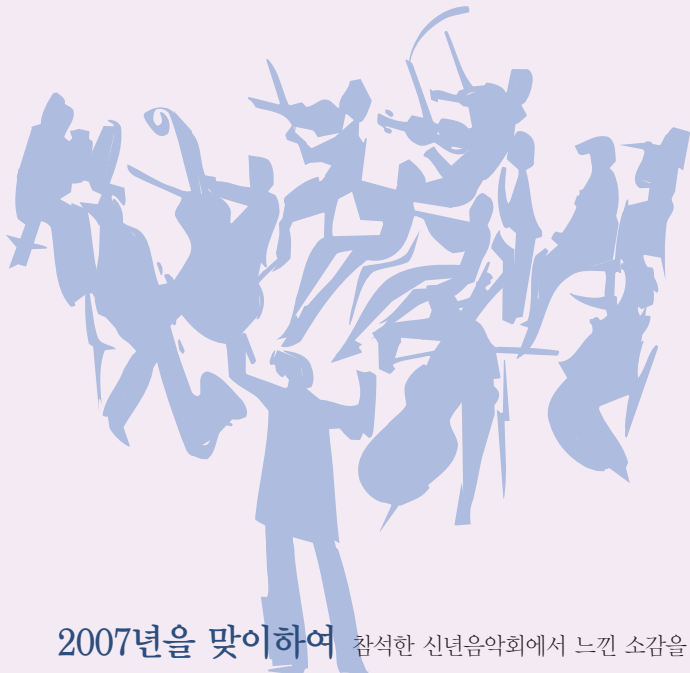
세계 우수비즈니스 여행지인 Business Traveler誌가 전 세계 항공사의 품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의 상입니다.

- BEST FLIGHT ATTENDANTS IN THE WORLD: 승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평가하는 상
- BEST IN-FLIGHT SERVICE IN THE WORLD: 기내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상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음악회에서 느낀 기업경영

강정애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을 즐겁고 기쁘게 할 때 상상을 초월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이 모두 발전하게 된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중과의 호흡을 맞추어 진행하는 모습을 감명 깊어 바라보았다. 훌륭한 연주회를 위해 내부 구성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휘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신뢰를 동반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오케스트라 단원과 청중 속의 많은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글로벌 세계의 환경에 적응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기를 기원해 보았다.

음악회의 절정은 지휘자가 성공적으로 음악회를 진행한 단원들을 청중에게 소개하며 박수를 청하는 순간이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공헌에 지휘자 자신도 감사를 표하며 청중의 동의를 구하는 피날레의 모습이다. 훌륭한 리더가 성공을 구성원에게 돌리는 모습은 지휘자가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를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아름다운 형태와 같다. 지도자들이 성공에 대한 공로를 구성원에게 돌리고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리더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음악회에 참석하여 감동을 받더라도 브라보를 외치며 연주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 기립박수 등과 같은 행동이 서양과 비교하여 적은 편이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지휘자는 음악이 감동을 주었다면 브라보를 외치는데 인색하지 말 것을 청중들에게 재치 있게 요청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곡이 끝날 때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를 기쁘게 외쳤다. 브라보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했고, 이를 경험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자부심을 얻은 표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브라보를 외쳐준다면 기업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도 저절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구성원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는 기업경영은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된다. 올해는 모두 조화로운 화음을 통해 상생하는 기업경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게도 축하를 드리며 브라보! 한국인간개발연구원! **人間**

2007년을 맞이하여 참석한 신년음악회에서 느낀 소감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회 프로그램은 관현악 곡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댄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지휘자의 설명에 의하면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싱어가 함께 진행하는 음악회는 서로의 독특한 개성으로 인해 조화롭게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을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블루오션 시도를 음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쟁력 향상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음악회는 모든 단원들 각자가 전문자적인 혼을 불어넣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이 조화를 이룬 음악회는 참석한 청중들을 깊은 감동과 행복한 시간으로 빠져들게 했다. 전문성에 열정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주를 하면 청중들이 감동하듯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된다면 강한 경쟁력을 지닌 개인, 기업, 국가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음악회를 다녀 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 어려운 곡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느라 구구단을 외우거나 손을 꼬집고, 그래도 안 되면 자장가를 들으며 잠을 자는 것! 신년음악회의 지휘자는 음악회 진행에 앞서 작품해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주었다. 덕분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졸지 않고 음악회를 즐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경영학의 연구주제 중 즐거움을 추구하는 'Fun 경영'을 생각해 보았다. 기업의 CEO분들이 진행하시는 숙명 멘토링프로그램 중 "즐거웁힌 힘이 있다"라는 주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변화된 사회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즐겁게 일을 할 때는 힘든지도 모르게 되어 성과도 크게 오르게 된다. 자기가 맡은 일



강정애 교수

1957년 생으로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Paris1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서울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및 한국리더십학회 여성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월 프로그램

2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 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01

중소기업 지원전략과 기업은행의 비전

1488회 2월 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강권석 기업은행 은행장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美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기획관리실 사무관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행정관 / 재무부 자금시장과장, 증권발행과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재정경제원 보협제도과장, 국고과장 / 駐뉴욕총영사관 재정경제관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겸 대변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
<상훈> 홍조근정훈장, 은탑산업훈장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 그만큼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증거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동고동락하며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자산 105조원, 당기순이익 1조 예상, 중소기업 여신시장 점유율 19.3% 등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을 굳힌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주력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인수합병을 거치지 않고 자산 100조원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기업은행은 그 동안 우산론, 일기예보론, 기업주치의론,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 등을 시행해 증기인들과의 상생경영을 강조해왔다. 올해도 타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은행은 중기 대출 순증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전략과 더불어 '국내 3강, 글로벌 50대 선도금융그룹'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최근 24년만에 CI를 교체하고 '규모의 경제'에 맞는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강권석 행장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전략에 대해 들어보고 이를 통한 기업은행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03

내맘대로 하다보니 네맘에도 든다더라

1490회 2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강우현 남이섬 사장

홍익대 그래픽디자인학과 졸업 / 홍익대 광고디자인 석사 /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CCCA) 대표 / 한국출판미술협회 회장 /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 한국위원장 /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교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센터 이사 / 한국유아교육협회 이사
<상훈> 환경문화예술상, 한국어린이문화대상, 한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상, 메세나대상 공로상 외
<저서> 그림동화 : 그림그리기 좋아하는 팬더 상싱, 장난을 좋아하는 팬더 장장 외
에세이 : 콜릭 내 머리 속의 아이디어 터치, 나는 남이섬에서 산다, 남이벤또, 남이상자 외

사람들은 남이섬의 변화를 두고 '남이섬의 천지개벽'이라고 부른다. 먹고 마시는 유원지였던 남이섬이 어느 날 드라마 '겨울연가'로 친숙하게 다가오더니 이제는 한류와 한국을 상징하는 관광지, 자연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남이섬을 찾는 사람들은 관광객만이 아니다. 삼성과 KT 등 대기업 임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찾고 있다.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성공한 남이섬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이다. '상상경영', '역발상실험' 등을 통해 확장했던 유원지를 동화의 섬으로 바꿔놓은 주인공은 바로 강우현 사장이다. 그는 지난 2001년 모험을 택했다. 본업이 그림동화작가였던 그가 대학 교수직 제의를 뿌리치고 미래를 점치기 어려운 섬지기를 택한 것이다. 그가 남이섬에 끌렸던 이유는 바로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의 남이섬을 만든 에너지이기도 하다.

주식회사 남이섬은 최근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다.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가평의 접점에 놓인 남이섬 주변에 세계인이 머무는 10만평 규모의 관광휴양지를 한국적인 소재인 강, 산, 골짜기를 이용해 문화마을로 만들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새로운 혁명을 꿈꾸고 있는 강우현 사장을 초빙하여 단순히 지역민을 유지하는 유원지 수준이 아니라 전국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남이섬의 아름다운 성공을 위한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0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경제부활의 빛과 그림자

1489회 2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노다 가즈오(野田一夫)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도쿄(東京)대 사회학과 졸업 / 도쿄대 대학원 특별연구생(기업 경영론 전공) / 릿교(立教)대 교수, 관광학과 초대학과장 / 美 MIT, 하버드대 '기업경영의 국제비교' 연구 / (재)일본종합연구소 초대소장 / (사)뉴비즈니스협회의 초대 이사장 / 다마(多摩)대학 초대학장, 명예학장 / 미야기(宮城)대학 초대학장

전후 일본은 1980년대까지 놀랄 만한 속도와 기세로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전세계 산업과 경영의 모델로 여겨져 왔으나 90년대부터 이른바 '거품경제 붕괴' 로 인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일본 경제재정성은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2006년 11월까지 이어져 전후 최장인 58개월 연속 호황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장기 경기호황의 1등 공신은 기업으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향상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장기불황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거품경제의 3대 과잉이라는 '부채, 인력, 설비'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다만 국내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아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경제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겪는 동안 1970년 설립된 일본종합연구소는 중립성, 유연성, 시대성을 기본 토대로 일본사회에서 '쌍크뱅크'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일본종합연구소 초대 소장이기도 한 노다 가즈오 이사장은 전후 일본의 부흥기부터 시련기를 거치는 동안 경영자의 의식개혁과 시대변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는 80년대 소니, 마쓰시다전기 창업자들과 기업가정신을 함께 하며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일구었고, 90년대 벤처의 대부로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 등을 양성했으며, 대학에서는 인재양성과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창립32주년 기념 연구회에서는 일본종합연구소의 노다 가즈오 이사장을 초빙하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최근 경기호황을 맞고 있는 일본경제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들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INVITATION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희망'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새해 소망에는 꼭 '성공'이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해년을 맞아 발간된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101인이 들려주는 성공비결 101가지>에는 바로 그 '희망'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책에 등장한 강연자 및 조찬강연의 산증인인 회원 여러분과 창립32주년 기념 경영자연구회를 겸하여 출판기념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에 진행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강연 내용의 정수가 일목요연하게 수록된 이 책은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2주년을 앞두고 발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부 조찬 & 참가자교류 / 출판기념행사 •••
- 2부 창립32주년 기념 특별연구회 •••••



박 청수 원불교 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

1956년 출가 / 원광대 원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불교철학 석사 / 홍익대 명예철학 박사 / 원불교 서울교구 강남교당 교무 / 국제다종교협력기구(TOU) 이사 / 한·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위원회 공동회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 / 학교법인 영산성지학원 이사장 / 학교법인 전인학원 이사장
<상훈> 대한적십자포장 박애장 금장, 캄보디아 왕실 사하 메트리이 훈장, 웅신봉사상, 국민훈장목련장 차
<저서>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 나를 사로잡는 지구촌 사람들, 하늘사람 차

04

국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랑나누기

1491회 2월 2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성직자' 라고 하면 사람들은 원불교 여성교무, 즉 '정녀'를 떠올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강남교당의 박청수 교무인 것은 그가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초 교화직책에서 정년 퇴임하고 개인수양에 들어간 박 교무는 원불교 여성 교역자로서 출가 후 50년 동안 수도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는 동시에 원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불교와 카톨릭, 기독교를 뛰어넘어 국내외 곳곳의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진정한 '세계시민' 이요, '빈자의 어머니'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31년째 지속하고 있는 성 라자로 마을 돕기, 17년 전부터 북인도의 설산 라다크 사람들을 위해 세운 기숙학교와 무료 구제병원, 너무도 가난하여 지뢰와 병마에 목숨을 잃고 있는 킬링필드의 땅 캄보디아에 세운 무료 구제병원 등 그의 한평생은 무지와 가난, 질병 퇴치를 위해, 또 지구촌의 재앙에 나눔의 손길을 펼쳐온 생애였다. 전 세계 55개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53개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슴으로 안아온 그는 '제2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생을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한 박청수 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을 초빙하여 은퇴 후에도 끝까지 않을 그의 나눔정신, 지구촌의 모든 경계를 넘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랑을 실천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속에서 읽혀지는 리더십과 열정, 비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48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신년하례회) / 1월 4일(목)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GNP 3만불시대의 전인적 인간개발을 위한 한국판 탈무드, 무지개원리

차동엽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 인천카톨릭대 교수



강의에 앞서 여러분은 '가톨릭'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원래 가톨릭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지역, 사람들에게 유효한 진리 또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가톨릭 사제로서 여기 서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 정신이 모든 시대, 민족, 지역의 관심사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먼저 확신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스의 자연철학, 로마의 법철학, 유대인의 역사철학에서 배우는 지혜

지금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 우리가 2007년 부정적인 전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현실 앞에서 이상과 현실의 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요즘 우리사회에 제시하는 처방들은 대부분 방법적이고, 단기적이고, 처세적인 접근들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리적이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접근은 불가능한가에 대해 나름대로 찾아보니 원리적 접근으로서 세 가지 인류의 문화유산이 주목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그리스 자연철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철학을 이 세상에 출현시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발견해 낼 수 있는

모든 진리는 다 찾아냈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그리스인들에 의해 진행되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정신을 더욱 계승하여 남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로마의 법철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로마는 일찍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법철학을 발전시켰다. 법철학은 한 국가의 개인과 국가의 공존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 이것을 잘 연구하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행정, 정치, 인권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철학이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철학에 깊은 관심과 통찰을 했다. 역사가 부흥하고 쇠망하는 원인과 법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역사는 흥성한다. 반면 어떤 형식으로도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천명을 무시하면 역사는 쇠망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대인 개척정신, 연대감, 정신가치를 중시한 유대인의 역사철학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철학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갈까 한다. 제가 이렇게 유대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대인이 우리에게 실증해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 20명을 뽑았는데 그 중 14명이 유대인이었다. 미국에서 제일부자 40명을 뽑아봤더니 20명이 유대인이었다. 노벨상도 유대인이 22%를 수상했다. 객관적으로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이 되었다. 거시적 접근에서 유대인이 가진 역사철학은 집단이 어떤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방이 있었다.

첫 번째가 개척정신이다. 이것은 이미 4천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 생존법칙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사막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물을 놓고 주변사람들이 전쟁을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물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개척하자, 레드오션을 피하고 블루오션의 길을 가자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는 지금도 가보면 그 이름이 '일곱 우물들'로 남아있다. 그는 우물을 팠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생존을 선택한 것이다. 요즘 우리 한국이 위기라고들 하는데 한국에도 개척정신이 많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잘 하는 일이라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

두 번째로 거시적 접근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존의 법칙을 보면 연대의 법칙이다. 유대인의 핏줄에는 고난구호대책이 확실히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십일조를 3년에 한번씩 가난구제기금으로 모두 사용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 돌보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사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좋지만 연대감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강연 주제 안에 '3만불시대'라는 말이 있다. 책임감이 크지만 나름의 비책을 가지고 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도덕시간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잘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다가 'I'm sorry', 'Thank you'라는 말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말을 쓸 수 있는 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가 되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말이 퍼지면서 우리 사회가 2만불시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3만불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말은 바로 'Congratulation'이다. 이 단어에는 '함께 한다, 저 사람의 기쁨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식이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턱내세요'라고 말한다. 마음으로는 축하하는데 정작 '축하'라는 말은 안 쓴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축하합니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Congratulation'을 민족의식에 고양시키는 의미에서 확산시킨다면 아마 기업윤리도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3만불시대는 평균치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공생공존. 이것이 3만불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

세 번째로 고난극복의 중요한 변수는 정신가치이다. 유대인들은 돈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돈보다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정신'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훈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이었는데 한국사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한국의 정신을 발굴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무지개원리'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 미시적으로 개인적 관점에서 역사철학을 보면 이것을 한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무지개원리'로 통합할 수 있다.

무지개원리의 뿌리는 유대인의 지혜에서 찾았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다. 이것을 발견하던 날 '심봤대!'라고 소리쳤다. 쉘마는 '들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해 한 말이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다하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니 '감성'이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의 의미는 '의지'이다. 힘을 다하여는 '이성'이라는 뜻이다. '다하라'를 현대적 의미로 바꾸면 '개발'이다. 그리하여 감성개발, 이성개발, 지성개발, 그리고 '거듭거듭'이란 말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습관이 되면 인성이 된다. 인성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이것이 전인개발이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첫째는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이다. 하늘이 문을 열고 복을 빌어줄 때 하는 일이 잘 되게 된다. 둘째는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몸에 배면, 그래서 거듭하다가 보면 평소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 그 자체가 변한다. 이 사람이 스포츠 선수라면 금메달을 따고, 예술가라면 장인이 되고, 학자라면 노벨상을 타고, 경제인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7가지의 무지개원리로 정리했다. 그런데 무지개원리에는 두 가지 포커스가 있다. 성공에 초점을 둘 것인가, 행복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 생각되어 행복에 초점을 맞춰 설명 드리겠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였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악처와 문제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사는 아저씨였다. 옆집 사는 아저씨가 찾아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아, 말을 타는 연습은 난폭한 말을 타고 하는 걸세. 나는 우리 마누라와 살면서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네. 난 지금 인생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산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부인과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이미 알았다. 그러니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호막을 치고 자신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 그를 살렸다.

하인즈 워드도 이 시대에 참 보기 좋은 사람이다. 한국에 와서 인터뷰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연출된, 그래서 이제는 몸에 배인 긍정적인 태도가 되었다. 혼혈아로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던 그는 학교생활이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있는 미키마우스를 보고 몸에 문신을 세긴 후 그 문신을 보면서 자신을 웃게 만들었다. 문신을 보면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을 키운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하인즈 워드를 만들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동서양을 구분하지 말고,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말고, 종교를 구분하지 말고 좋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참 지혜란 무엇인가.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있는 사공에게 으스스대며 물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사는 맛을 모르는 구먼. 그러면 공맹(孔孟)의 가르침은 아는가?” “모릅니다.”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넨 왜 사는가?”

이 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다. 이번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다.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목숨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재산이고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정보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인생의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능력은 무엇인지 진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참 행복을, 참 삶의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목숨을, 이 삶의 기회를 참으로 값지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꿈을 품으라. 꿈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 앉아있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어떤 꿈을 품을 것인가.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다. 저는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아버지가 옛날에 신문기자를 하셨다. 그런데 공산당에 부역을 해서 서울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총살형을 면하고 시골로 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가족들 생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러다 다시 서울로 이사와 난곡이라는 산동네에서 어린 시절 연탄배달과 쌀배달을 하며 자랐다. 저에게는 빈곤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며 몸부림치면서 대학에 들어갔다. 명문대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런 저런 책을 읽으면서 저의 궁극적인 관심이 성공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제 얘기지만 성공이 우선인 분도 있고, 행복이 우선인 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행복에 관심이 더 많아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다.

무엇이 되었건 꿈을 품으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욕심에다가 좀 더 원대하고 거룩한 욕심들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인류에 기여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귀한 뜻이 될 것이다. 그 뜻이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더욱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넷째, 성취를 믿으라. 성취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중서부 지방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어찌해야할 지를 몰랐다.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논바닥이 갈라지는 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그 지역 교회들도 하나가 되어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모임을 열기로 했다. 그때 한 교회에 기도모임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 앞줄에 어린 소녀가 앉아있었다. 그 아이는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돼서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고,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놓여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하러 왔지만,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왔던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무언가를 꿈꾸고 기대할 때는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 질 것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다.

다섯째, 말을 다스리라. 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06년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말이다. 연초에 언론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말이다.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비판적인 원론을 내놓고 망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의 열매를 2006년도 하반기에 따먹게 되었다. 2007년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얘기하기보다는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긍정적인 말 농사를 지어놓고 연말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야 한다. 안 된다, 망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면 버티기가 어렵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로 한해 농사를 잘 지으시길 바란다.

여섯째, 습관을 길들이라. 먼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어느 집안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의 일은 요강을 닦는 것이었다. 어느 날 주인이 요강 닦는 머슴을 지켜보다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불렀다. “너 학교 다녀. 너 요강 닦으며 머슴으로 살 사람이 아냐. 공부시켜 줄 테니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고맙거든 나라를 위해 갚아” 그 머슴은 학교에 갔고 공부를 잘해 선생님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바로 조만식 선생이다. 그가 유명해져서 젊은이들이 세배를 하러 와서 덕담을 들려주길 청했는데, 그는 “요강을 잘 닦아라”라고 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요강을 닦으며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다. 학벌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유대인은 성공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길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인은 명문학교에 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궁극적인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을 이뤄냈다.

일곱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



가 온다고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유학생활 때 알프스 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산장이 하나 있었는데, 산장에서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있었다. 그 십자가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 그는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했다. 그런데 옆친 데 댈친 격으로 해가 저서 어둠까지 내렸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걸었으나 가도가도 산장은 나오지 않았다.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헤매던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다음날 눈보라가 걷힌 다음, 사람들은 길가에서 얼어죽은 등산가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가 얼어죽은 장소는 바로 산장에서 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만일 그가 눈보라와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5m만 더 갔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5m 만 더 가자!” 라고 말한다.

단 한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성찰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 부족하지만 무지개원리를 행복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다. 사족을 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 한다.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좋은 시를 남겨 주었다.

〈한 번에 한사람〉 - 마더 테레사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사람이 소중한 것. 여러분이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그곳에 속한 단 한 명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한사람이 소중해 보이면 여러분의 인품, 성품이 수준있는 곳까지 왔다고 보시면 된다. 한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사람이 보일 때까지 우리 인격을 갈고 닦고 성찰할 때 대한민국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진다. **人間**

인바운드국제화로 글로벌리더 양성하는 연세대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사진 오경근 촬영

“우리 학생을 해외로 내보내기만 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학생을 유치해오는 ‘인바운드(Inbound)’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연세대는 우리 학생과 교수들이 외국인 학생, 교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대학이 있기에 학생들이 몰려드는 시절은 끝났다. 대학은 늘어났지만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학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조기유학과 교육시장 개방의 여파는 대학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2007년, 한국의 대학들은 ‘국제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국제화의 능사가 아니라란 점을 간파하고 외국 학생, 교수진을 유치해 한국에서 국제화를 실천하는 ‘인바운드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세대의 국제화는 ‘5개 분야에서 5년 이내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조성해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있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이다.

2004년 취임한 정창영 총장은 모교 출신으로 그 동안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대학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 92년 기획실장 시절 ‘연세비전21’이라는 종합발전계획을 입안했고, 지금은 ‘글로벌5-5-1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세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무려 2,234억원을 모금해 취임 후 해마다 1000억원의 연세기금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 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앞서 정책적으로 대학교육의 형평성보다는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정창영 총장을 만나 연세대의 미래를 뒤바꿀 새비전의 내용을 들어보고 대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창영 총장

1943년 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美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71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연세대 재무처장, 기획실장, 경영대학원장, 행정·대의 부총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대학발전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에 제3캠퍼스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현재 추진상황이 궁금합니다.

◆ 연세대는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내 55만평 규모의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화복합단지는 한국인 학생과 교수 이외에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데려와 글로벌캠퍼스를 만들려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의 통학형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죠. 또한 국내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연세대의 연구인력과 함께 연구·개발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을 해외로 내보내기만 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학생을 유치해오는 '인바운드(Inbound)'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 한국 대학들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교수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대학들이 세계화를 실천하려면 외국인 학생, 교수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캠퍼스죠. 연세대 학생, 교수들이 외국인 학생, 교수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글로벌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Science&Engineering R&D Park' 설립입니다. 지금 본교에는 우리 연구진과 외국 기업들의 연구소가 함께 연구할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에 글로벌 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고, IT클러스터를 구축해 우리 연구진과 외국 연구진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학의 기능 중 연구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Joint University Campus'로 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해서 연세대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Global Academy Village'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연세대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연세대가 교육과 연구에 있어 세계적 수준을 지향해서 동아시아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상해처럼 동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것인데, 연세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대학이 되어 인천이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송도캠퍼스에 미국 우수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 미국 UC버클리대학의 분교가 송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UC버클리를 방문해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논의했죠. 2월초에는 UC버클리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대한 구체적인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해 함께 연구하고, 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들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Joint University Campus' 구상 계획입니다. 이번 UC버클리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연세대가 지향하는 인바운드국제화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얼마 전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과 함께 우주연구원 설립에도 합의하셨는데요. 연세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요.

◆ 하버드대학과 스미소니언 미국 국립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천체물리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만 900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천문학 연구조직으로 이 분야 최고의 학술적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천문우주학 분야도 이미 세계 10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의 연구진들간에는 이미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그 동안의 교류 기회 속에서 그들이 우리 교수진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 우주연구원 설립협약도 가능했던 겁니다. 향후 양 기관은 우주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에 들어설 우주연구원 설비계획과 연구교육 협력의 세부계획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지역 우주연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해 향후 10년 이내에 연세-하버드-스미소니언 우주연구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아시아 R&D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2007년 신년사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를 화두로 던지셨는데요. 연세비전 달성을 위한 '글로벌 5-5-10'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의 화두는 '국제화'입니다. 그런데 국제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죠.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대학들의 국제화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들이 생각하는 국제화는 학생들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21세기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다문화 적응력(intercultural competence)'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연세대는 교육과 연구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992년 '연세비전 21'을 제시하면서 201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들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과, 공과, 의대 등 세 분야의 과학논문인용색인(SCI)을 기준으로 2005년도에 연세대가 세계 104위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목표를 앞당기고 있는 거죠.

지난해 발표한 '연세비전 2020'은 '글로벌 5-5-10'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5개 분야에서 5년 이내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고권위자는 당연히 한국사람입니다. 특히 연세대는 일제시대 때부터 국학의 본산이었죠. 그래서 문학, 사회, 철학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한국학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 1위가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국학만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학,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학 연구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20세기가 물리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50대의 예상 평균수명이 90세라고 하는데, 결국 건강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건강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병장수시대에 진입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연세대 본교의 생명과학 분야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연세의료원의 임상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본교의 생명과학과 병원의 임상경험을 합쳐 'Bio-Medical'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기업들은 여전히 대학 졸업생들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부실로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얘기죠. 이는 교육시스템이나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 미국 대학과 영국 대학을 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위주로 교육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초교육을 중시하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진부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대학들의 생각이죠.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기업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단기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하는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능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엘리트교육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예요.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재에게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재가 기업의 재교육을 통해서 회사의 부가가치를 증진할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개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기업은 재투자자 교육을 통해 인재

를 완성하는데 주력하는 역할분담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대학의 75%가 사립대학인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학교예산의 4%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선진국 중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데도 13%죠. 정부의 교육예산 중 90%가 초중고교에 지원되고 대학에는 10%의 예산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형평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었겠지만 선진국을 눈앞에 둔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학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작년 8월 뉴스위크지에 '세계100대 대학'에 관한 특집기사가 실렸는데, 대부분이 미국 대학들의 이야기였고, 아시아지역 대학은 중국과 싱가포르 대학이 전부였어요. 한국 대학에 관한 이야기는 단 두 줄밖에 없더군요. 미국 대학들은 경쟁을 통해서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유럽 대학은 형평을 중요시하면서 정부가 모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침체에 빠져 있죠. 중국과 싱가포르 대학은 바로 미국 대학을 벤치마킹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형평을 증진하는 쪽에 기울고 있는 대학교육에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법대와 경영대의 모집광고를 별도로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법대와 경영대 육성을 위한 방법이었다는데 효과는 어땠는지요.

◆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회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른 분들을 보면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대로 저희가 키운 인재가 사회 각 분야의 정상에 올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최근 들어 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법고시 합격생이 121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도 우리학교에서 나오는 등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밝죠.



경영대학은 과거부터 연대를 '연상' 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죠. 지금 그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대학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학장님들의 판단 하에 독자적인 신입생 광고도 집행한 겁니다. 그 영향이 컸는지 2007년 신입생모집 경쟁률이 5:1을 기록해 예년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 기존의 언더우드국제학부를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타 국제대학 과정과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최근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던 학생들이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U턴'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대학과 언더우드국제대학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굳이 외국으로 나가 비싼 학비를 부담하느니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의식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시아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부에서 대학으로 승격이 된 거죠.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1, 2학년 때는 무조건 기초학문을 공부하고 3, 4학년이 되면 자기 전공과로 옮겨게 됩니다. 전공과에 가서도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죠. 때문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연세대의 국제화계획을 추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학 수 증가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화와 개혁은 리더의 철학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대학 '총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학발전을 위한 모금활동을 주도하고, 'CEO형 총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제 총장 역할의 필수조건이 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수라면 이제는 이것을 넘어 총장은 대학의 기본가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대학을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킬지, 세계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상명하달의 조직이 아닙니다.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대학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의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시켜 대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 총장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수진들이 학교 발전방향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다면 학교의 발전속도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취임 후 해마다 1000억원의 연세기금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현재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 2006년도에는 2,234억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은 학교이고, 이를 수요하는 곳은 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의 폭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남은 기간 목표는 몇 가지 대학 인프라 확충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에 충실한 대학,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연구하는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글로벌 5-5-10'을 통해 우리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기초교육을 강화해 글로벌마인드를 지닌 리더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창학정신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항상 온화한 미소가 총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총장님만의 비법이 있으신지요.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죠. 그래서 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는 것은 없지만 학교업무를 열심히 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겨지니까 건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이 2월 5일로 창립 32주년을 맞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강사로 활동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목요초찬세미나가 지난 32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벌써 1500여 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일찍이 '인적자원개발'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신 장 회장님의 선견지명 또한 놀랍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이 현대화에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가 발전한 것은 결국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람'의 일에 헌신하신 것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야 할 업적이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지난 업적에 더해 더욱 빛나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기관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問)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 교육

이윽희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

2006년 8월 계룡대에서 시작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1기 교육과정은 지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 생각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LMI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소망하는 업무 목표의 달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과정과 그 속에서 얻은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퍼스널 리더십은 자기 확신의 능력

리더십의 성공여부도 나 자신에게 달려있어

처음 교육에 참가했을 때는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8월이었다.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각급 지휘관과 참모 보직을 거치면서 조직원들을 직접 지휘 관리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해 왔기에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학업에 임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교육에 참가했다.

EPL 교육과정은 분명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퍼스널 리더십의 원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퍼스널 리더십이란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만드는 자기 확신의 능력을 말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리더십의 모형은 성공한 사람들의 외적 조건에서 찾으려 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명성이나 권위, 재산, 능력, 인기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성공과 리더십을 정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리더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 바로 EPL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퍼스널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믿으며, 건전한 자아상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지속시킬 방법을 배워, 목표설정을 생활화하는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잠재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알고 미개발된 막강한 잠재능력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십 개발의 출발점이 되므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건전한 자아상이란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식하여 생겨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적 영상을 말한다. 부정적인 셀프이미지는 퍼스널 리더십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정신적인 두려움과 회의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면으로부터 긍정적인 셀프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발적인 동기부여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동기부여란 성취되리라는 믿음과 기대에서 생겨나는 욕구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나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태도변화에 의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에 찬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는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긍정적으로 설정하되 현실적이고 실

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생활화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시한을 정하여 도전의지를 심어주며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다짐, 효과적인 시간관리,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 퍼스널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교육 통해 주관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힘 생겨

이상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소극적이던 자세가 점차 교육이 진행되면서 적극적으로 변했다. FT(Facilitator)의 열정적인 지도를 받으며 내면에서부터 용솨음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무한한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매주 학습과제를 읽고, 조용히 사고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리포트 작성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하며 부족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겸손과 절제를 기반으로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해야 하고, 나의 변화를 바탕으로 내 주변이 변화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내가 속한 조직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직을 자신에게 맞추는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나아가 우리를 위한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목표가 아닌 우리의 목표가 설정될 때 조직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교육 내용에서 체득한 경험을 직접 조직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다음 몇 가지를 직접 시험해 보았다.

시험 내용은 먼저, 필요한 말만 하기, 둘째 많이 들어주기, 셋째 많이 웃

어주기, 넷째 칭찬을 많이 하려 노력하며 적어도 하루에 1명씩 칭찬해 주기 등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으며, 직원들도 다소 어리둥절해 하며 불편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직원들도 점차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도 조직 전체의 업무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나와 조직을 직접 체험하고 보니 교육과정 시작 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좀 더 열심히 예습과제를 수행하고 리포트를 작성했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많은 간부들도 LMI 교육과정을 경험하여 군 조직 내의 많은 장병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군생활은 인생을 위한 학업의 연장선 리더십교육의 확산은 군발전뿐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것

사실 군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방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 중 상당한 부분들을 체험하고 공부하는 '인생을 위한 학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은 후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완수하고 나면 기업이나 직장,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군생활 기간 중에 유익한 교육을 받게 된다. 즉, 군대에서의 경험은 개개인의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장병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정보화 및 과학화 발전추세에 맞추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문이나 체력단련 등 외형적인 면은 물론, 국가관 등 내면적인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LMI 교육과정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확대된다면 군대는 물론 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을 경험한 장기근무자는 군에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의 안보의식제고'와 '현용 전투력발전 및 미래전력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고급 간부에 의해 지도 받고 관리되어 근무하면서 단기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도 사회에 복귀해서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직장, 그리고 다양한 부서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따라서 작년에는 계룡대에서 소수 인원들만 첫 번째 과정을 마쳤지만, 금년부터는 더 많은 간부들이 교육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교육과정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안호열 FT와 육군 간부를 위해 소중한 기회를 주신 민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人間)



이용희 소장

1952년 생으로 육사 31기 출신이다. 아전부대 지휘관, 정책 및 교육부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기동군단 참모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교육사령부 지원부장, 육군복지근무단장 등을 거쳐 현재 육군 군사연구소장(준장)을 맡고 있다.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아 동국대 외교국방 석사, 공주대 윤리교육학 박사과정, 배재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 많은 교육과정을 마쳤다.

제26회 양양군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12월 28일(목)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김종일 (재)가나안복민회 이사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강해 매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는 본원과 양양군(군수 이진호)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양양아카데미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기혁신 및 자기계발을 위한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양양군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양양아카데미가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2월 28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주제로 제26회 강연을 해주신 김종일 이사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가나안농군학교는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빈곤 지역 12개국에도 나가 있다. 이곳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고 여러 연구소에서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사는 나라임을 발견한다. 218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13번째로 잘사는 나라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강국으로 평가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에서 배워야한다고 했는데, 중국의 잘 나가는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등도 아직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



**한국은 고급인력이 많은 나라
그러나 문화적 정신적 수준 못 미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 1996년 기준 대졸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한국 16.4%이다. 미국

24%, 독일 13%, 영국 12%, 프랑스 9%이며, OECD 평균도 12%밖에 안 된다. 2001년 25~34세의 고학력 비율은 미국 27%, 한국 23%, 독일 14%, 영국 17%, 일본 23%이고, OECD 평균은 16%밖에 안 된다. 고등학교 졸업률도 2001년 기준으로 일본 93%, 한국 92%, 독일과 미국이 88%, 영국63% 등 우리가 세계 2위이다.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 10만 명당 이공계 학사 자격 이상을 가진 사람도 미국 94명, 일본 84명, 한국 163명으로 세계 1위이다. 그래서 결론코 우리나라는 나쁠 수가 없다. 부존자원이 적은 대신 인구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이 많아졌다는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의 교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교육열은 세계적이지만 인간교육에는 별 성과가 없다' 라고 되어있다.

이만큼 역사가 깊고, 머리가 좋고, 뛰어난 나라이지만 한국사람이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1999년 동아일보에서 한국인의 자기진단을 한 적이 있다. 조사한 내용 가운데 46가지를 고치지 않

김종일 이사장

1930년 생으로 장로회신학대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 농학부대학원을 수료한 후 서울여대에서 명예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2년 선친인 김용기 장로와 함께 가나안농군학교를 창설했다. 그간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이사장, 가나안교회 담임목사 등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농촌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일가기념상 상임이사 및 가나안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면 결코 1등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자산업이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한국사람들의 문화수준과 정신수준이 세계 1등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기준

양양군은 관광으로 유명하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양양을 찾는다. 그러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람들이 이곳 수준이 어떤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어도 다섯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1920년 1월 2일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한국인들이 계약근로자로 갔다. 이들이 바로 이민 1호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곳에서 도산 선생이 민족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접을 못 받는 최대 요인은 거짓말이다. 대한민족을 건질 뜻이 있다면 면에서 구하지 말고 우리의 원수 되는 속임을 버리고 진실을 모셔야 한다”라고 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제1가나안농군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18개 백화점과 쇼핑몰의 판촉담당자들만을 모아서 교육을 한 적이 있다. 그 중 한 백화점의 판촉과장들이 일본에 가서 상품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고르다가 양피지갑을 들여와 3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전혀 매출이 오르지 않아 장남 삼아 30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더니 일주일만에 전량이 팔렸다고 한다. 이런 정신상태로 인해 한국에는 ‘짜퉁’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더욱 소문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거짓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는 아기에게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한다. 왜 이런 것부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면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몇 백년을 이어왔다. 윗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선생, 부모들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한국은 거짓말 왕국이란 말로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정직하고 품위있고 거짓없이 참말만 하는 백성이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뇌물공화국이다. 가정에서부터 문제다. 요즘 아이들은 희소가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어른들도 마음대로 교육을 못 시킨다. “너 심부름 좀 다녀와” “싫어” “돈줄께 다녀와” “응” 이런 식의 대화가 넘쳐난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 조금만 잘 받아오면 “너 뭐 먹고 싶어, 뭐 사줄까?” 이렇게 물질적인 풍토를 만들어주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설날 세배조차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초등학교들이 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친구들에게 뷔페 이용권을 돌린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아이가 성장해서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한다면 어린 시절 배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패, 금권, 타락, 부정선거이자 우리나라가 뇌물공화국으로 가는 이유이다. 무엇이든 성실과 정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돈으로만 해결

하려 한다. 국민의 마음속에 뇌물에 관한 생각이 너무 많다. 어떤 대가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는 성매매 1등 국가이다. 양양도 관광지라는 특성상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성매매 1등 국가라는 것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해자의 연령은 점차 높아져 가고 피해자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12세 미만의 여아를 추행한 것이 피해자의 20%가 넘는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

넷째, 우리나라는 도둑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도적질은 과거 6·25전쟁 때 미군 1개 대대가 있으면 그 지역 인구가 4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직하게 근로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훔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한국사람은 도둑이 많다고 소문이 나게 되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준법정신이 결여된 나라이다. 각종 법률은 물론 도로교통법마저 안 지킨다. 원주에 있는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다녀오는데, 중부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10km이다. 사실 100km로만 달려도 무서운데, 이렇게 달리면 뒤에서 밀어붙인다. 그리고 추월을 하는데, 차간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 3m의 간격만 있어도 끼어 들고, 10m의 거리만 있으면 관광버스가 끼어 든다. 그러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인 것이다.

우뇌의 자기억압능력 부족하면 도덕적 수준 낮아져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1등 국가는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의식을 바꿀 것인가. 교육의 효과는 연령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일주일, 보름간 집체교육을 시키는데, 강의 때는 맘을 다잡다가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벌써 그 마음이 소용없어지는 모습을 본다. 수료소감을 들어보면 ‘인생을 깨닫고 바로 살겠다’ 얘기하지만 나가는 순간 모두 잊는다. 인간의 망각곡선이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모두 잊는 것 같다.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부터 바꾸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인간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둘은 전혀 역할이 다르다. 좌뇌는 이성을 주관한다고 해서 이성뇌라고 하고 보통 7가지 기능을 한다. 기억력, 추리, 지각, 추상, 공간활용, 언어구사력, 문자구사력이 그것이다. 왼쪽 뇌가 발달하면 기억력이 좋고, 수리능력도 좋고, 공부를 잘한다. 공간 활용능력과 언어구사력도 뛰어나 소설가나 예술가가 많다. 우뇌는 정서를 주관해서 정서뇌라고 하는데 잠재의식을 나타내며 7가지 특성이 있다. 자기인지능력, 자기억압능력, 배려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능력, 사회성, 직관이 발달하여 계속적이고 긍정적이며 낭만적이고 적극적인 점, 창의력 등이다.

좌뇌는 대체적으로 IQ를 결정하는 요소를 주관한다. IQ는 6세가 되면 성장이 완료된다. 우뇌는 감정적인 부분이며 EQ를 결정하는데, 76세까지 성장한다. 결국 우뇌의 자기억압능력, 자기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을 잘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성도덕, 타락, 도적질을 잘한다. 이 모든 도덕적인 것은 우뇌의 주관사향이다.

인간교육 부재로 인한 국가적 성장 지체

입신출세 교육이 주가 된 한국, 교육과 수양 통해 인격 완성해야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못된 점이 많다. 해방 이후 50년간은 인간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 일류병에만 걸려 인간적인 교육이 부족했다. 가르쳐야 할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다. 학·박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부터 1등 국가 대접을 못 받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거나 원초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에 벼슬하는 것, 돈버는 것, 잘먹고 잘사는 것, 입신출세하는 것만 가르치고, 인간이 무엇이며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다.

칸트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경향으로부터 항거하는데 있다' 라고 했다. 알포트는 인격이란 '인간이 갖는 원색적인 본능을 교육과 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억압하여 나타낸 모습' 이라고 했고, 프로이트는 인격이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본능을 교육과 예술과 종교를 통해서 억압해내는 것' 이라고 했다. 결국 인격론이란 모두 억압이론이다.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성욕, 식욕, 투쟁욕, 군집욕, 도피욕구라는 다섯 가지 인간의 본능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것을 모두 충족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인 것을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격론자들이 억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 수양을 통해 이를 억압하면서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을 가장 많이 받아먹은 사람이 4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는 돈을 갖고 싶은 본능을 억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인간됨을 말하는 교육이 절대 부족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송나라에서 들여온 과거제는 원래 출신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것이 도입되면서 과거를 보는 사람은 사농공상 중에 선비 외에는 볼 수 없도록 했다.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는 양반 계층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다. 3대 내에 당상관 이상의 벼슬이 나오지 않으면 중인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남아를 등관시키려 했는데, 이때부터 교육열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없어지는 듯 했으나 친일파들로 인해 다시금 이어간다. 이것이 45년 해방으로 없어졌으나 미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누구나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교육은 인간교육보다 입신출세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었고, 결국 도덕은 무너졌다.

1950년대 전쟁 중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특히 농촌에는 사기, 도적 등 5대 범죄가 많았다. 1965년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만 달러시대이다. 그 당시보다도 200배는 더 잘 살게 됐지만 오늘날 사기, 횡령, 절도 등 범죄는 더 많아졌다. 나라가 풍요해지고 세계에서 13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인간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고소득국가라 하더라도 범죄가 많은 것은 인간교육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된다.

제 경우 아버지께서 근로교육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 하면, '근로를 해야 인간이 된다' 고 하시며, 5살 때부터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살게 돼있다' 는 점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일을 했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일을 할래, 아니면 안 먹고 굶어죽을래?' 하시며 엄하게 일을 시켰다. 이런 생활이 지금까지다. 지금도 강연을 하든 글을 쓰든 교육을 하든 일을 계속 해야 한다.

그때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이게 바로 살길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능적인 걸 억압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강원도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곳 양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관광객이 몇 천명씩 올 것 아닌가. 여러 사람들이 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다. 성인들의 인격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세계의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이며, 어디에 나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소득 높아도 도덕적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1등 국가 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우리가 가진 의식이다.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해서 독일의 온 국민이 실의에 차있었다. 황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자 황후가 페스탈로치를 찾아가 그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 그후로도 세 번을 더 다녀왔다. 그리고 직접 교육개혁에 관한 원고를 쓰게 되었고, 그 제목이 '독일국민에게 고함' 이다. 이 원고를 보면 패전국가로부터 일어서자면 국민정서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도덕교육과 인간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독일병사들이 강성해져서 프랑스를 섬멸했다. 개선장군을 치하하는 파티에서 모두가 개선장군을 위해 만세를 부르려 하자 그가 말하길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죽을 바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는 것보다 고상한 죽음은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모든 독일군의 뇌리에 박혀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 '독일교사 만세' 를 부르자"라고 했다.

이후 독일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되었다. 지금 독일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는 심리학 박사라야 가능하다. 아이들의 인격교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해방 이후 '돈이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는 의식에 사로잡혀 인격과 인간다움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양양이 진정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부각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각되고 싶은가? 도덕적인 곳, 인간다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부각되어 여러분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부각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다. (人間)

사랑과 용서의 힘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평화의 길, 변영의 길, 행복의 길은 인간개발연구원이 개발한 PT(People Technology)를 바탕으로 하여 '좋은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Better People Better World)'는 인간개발캠페인과 함께 추구해나갈 방향이다.

인류는 새천년을 맞으면서 21세기를 인간의 시대, 평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테러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소말리아전쟁 등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후세인이 사형당했으며, 반격을 멈추지 않는 이라크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증원을 했지만 하루에 24명이란 미군이 생명을 잃는 전쟁의 실상을 보면서 과연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더구나 대량살상을 전제로 한 핵전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누가 말했는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어떠한 전쟁은 인류역사와 함께 지속돼 오고 있다.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많은 세계적 기구들이 생겼지만 전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쟁은 이겨야 하는가, 져야 하는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정도는 무엇일까.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거나 전쟁의 원인을 없애는 길이 아닐까.

성서에 의하면 '멸망(죽음)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한다. 프루스트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람이 가서 닦아진 길과 아직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길이 없는 길.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아직 아무도 걸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혼자 고독하게 걷는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인간이해의 길은 마하트마 간디가 걸어갔던 블루오션의 길이였다. 예수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형틀이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 용서와 사랑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행위의 선과 악을 가리는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 용서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은 역설한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용서와 사랑이 주는 위대한 힘을 말해주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플라시도 도밍고(Placido Domingo)와 호세 카레라스(Jose Carreras)는 스

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들이다. 그런데 플라시도 도밍고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이고, 호세 카레라스는 카탈란 출신이다. 카탈란은 마드리드 지배하의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자주독립을 투쟁해 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두 성악가는 성악가로서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라이벌이다.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도 서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1987년, 카레라스가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는 혈액암과 투병하느라 육체적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벌어놓은 돈도 모두 치료비에 소진되고 말았다.

그 때 카레라스는 마드리드에 있는 허모사재단병원이 백혈병 전문병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병원의 도움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해방된 카레라스는 다시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는 자신을 살려준 허모사병원에 보답할 길을 찾았다. 그렇게 허모사병원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그는 재단의 창립자이며 CEO가 다름 아닌 그의 라이벌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또한 도밍고가 카레라스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병원을 설립하고서도 숨긴 것은 카레라스가 도움을 받으면서 창피스럽게 느껴질까 봐 그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깊은 감동을 받은 카레라스는 어느 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도밍고의 공연장에 찾아가 공연중인 도밍고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관객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도밍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힘껏 껴안았고, 둘은 훌륭한 친구로서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

도밍고는 공연 후 라이벌을 위해 특수병원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의 유일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정상의 성악가, 그리고 그의 고귀한 음성을 세계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용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용서를 받는 사람은 물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전쟁을 이기는 힘은 사랑과 용서의 힘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

지난 32년간 우리 연구원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성장·발전에 마음을 다해서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Better People Better World 애독자 여러분들께 평화와 변영 그리고 행복을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힘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人間**



현대인의 수면건강 잘 웃으면 잘 잘 수 있다

오상구 미래건강수면연구소 소장



뇌의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는 질 높은 혈액 필요 혈중 산소량 적어지면 신체반응 무뎌져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것에 의해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뇌가 힘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면을 취할 동안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뇌에 필요한 것은 수면과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질 높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질 높은 혈액은 많은 에너지를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호르몬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 그 속에는 산소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 높은 혈액 중에 산소의 양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뇌가 곧바로 파괴된다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액 중에 산소가 적어지면 뇌의 움직임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고 생각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등산에 관한 예를 들어봅시다. 높은 산에 오르면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당연히 호흡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산소도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움직임도 무디어지죠. 히말라야나 알프스에서 종종 우리나라 산악인의 사고나 조난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경우도 모두 산소의 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아주 적다면 생명에 치명적이겠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생각이 무디어지고 판단력도 무디어집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산소가 희박해진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중의 산소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혈액 속의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근을 위해 매일 아침 만원버스나 지하철에 시달리고, 회사에서 책상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으면 뇌의 움직임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몸 속의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좁은 버스과 밀폐된 지하철 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일은 몸

오상구 소장

1951년 생으로 우송대에서 스포츠건강관리학을 전공하고 성민대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했다. 현재 미래건강수면연구소 소장으로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생을 바꾸는 수면', '수면건강법'에 관한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환영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생활이죠. 뇌가 휴식을 취하고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가 건강해야 합니다. 산소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으면 만족할만한 수면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잠을 잤다고 해도 깨운하지 않습니다.

많이 웃으면 산소 섭취량도 증가

활발한 호흡은 아드레날린 분비로 몸의 각성도 높여줘

그러면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산소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의외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잘 웃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면서 동시에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웃으면 복근을 중심으로 근육도 사용하기 때문에 피의 움직임도 촉진됩니다. 이것이 호흡한 산소를 몸 속에 보내는데 한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장에도 자극이 되어 소화기관도 좋아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웃음은 뇌에 쾌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쾌감호르몬인 엔돌핀의 분비도 촉진합니다. 어쩌면 작은 의미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웃는 일없이 늘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 마음도 몸도 불편해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때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는 움직임을 관장하고 부교감신경은 쉬거나 잠을 잘 때 작용합니다. 부교감신경이 동적인 자율신경이므로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는 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를 폐에 듬뿍 흡입하고 혈중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심박수를 많게 하여 혈액을 체내에 운반하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으로부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간장으로부터는 포도당이 나와 혈액으로 공급됩니다. 포도당은 이미 에너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동맥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 말단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은 바깥으로 향하여 나가고 싶은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에 대하여 몸이 대처할 자세를 취하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각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전태세와 같으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는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과다한 위산에 의해 위의 점막도 손상됩니다. 그러면 안절부절하게 되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잠을 자기 직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잠은커녕 온 신체가 흥분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은 건강한 수면의 최대 적

여유있는 시간 활용으로 웃는 기회 늘려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격이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약간 부딪혔다고 해서 곧바로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동패턴이나 사고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그것이 습성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세한 일에 자주 짜증을 내다보면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짜증을 내거나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 좋은 수면은 물 건너갑니다.

이럴 때는 취미나 오락으로 정적인 자율신경을 사용하는 기회를 많이 주게 되면 화나 짜증을 내는 성격도 점차로 개선되어 안절부절한 것이 차분한 성격으로, 잠 잘 자는 체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절부절한 순간을 줄이고 웃는 기회를 늘려서 뇌의 산소공급을 점차 늘려간다면 불면증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우선 짜증나지 않는 여유있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유쾌하고 즐겁게 웃는 웃음이 질 높은 수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대교(회장 송자)**가 청소년 중국어 인증시험인 YCT(Young Chinese Test, 소아한어고시)의 국내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교는 중국 국가한어국제보급도소조판공실과 YCT에 관한 상호계약을 체결해 2007년부터 2년 간 국내에서 YCT의 마케팅 및 시험을 주관하게 됐다. 송자 회장은 "공신력있는 중국어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중국어 시장 확대 및 대교의 중국어학습자 차이홍중국어의 회원수 증가를 기대한다"며, "매년 2만명의 응시생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경동(SH공사 이사) 회원**은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주택공급정책이 도시계획 왜곡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차영준(주)유창 부사장 회원**은 지난 1월 16일 대전광역시향우회 중앙회 신년교례회에서 신임회장에 취임하였다. 차 회장은 취임사에서 충청 출향인의 역량을 모아 고향발전의 초석을 이룰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정경연(정경연한의원 원장) 회원**은 <스트레스 제로기술>(랜덤하우스)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직장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각종 스트레스 피해자들을 10여년간 진료한 경험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저자는 스트레스 관리가 곧 경쟁력인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복(영동농장 회장) 회원**은 KBS라디오방송의 '종교와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1주일간 아래와 같이 방송강연을 한다.

- 일 시 : 1월 29일(월) ~ 2월 4일(일) AM03:00~03:30
- 방송채널 : KBS 사회교육방송 주파수 972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대주제로 제3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월 7일(수) ~ 9(금) 3일간

- 장소 : 조선포텔 그랜드볼룸
- 문의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무국 (02-3270-7373~5)

• **웅진씽크빅(회장 윤석금)**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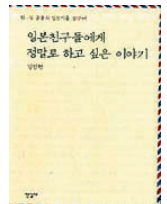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23층
- 전화 : 02-2076-4500 / 팩스 : 02-2076-4502

• **삼익THK(주)(심갑보 대표이사부회장)**는 '2007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한다.

- 일시 : 1월 31일(수) ~ 2월 2일(금) 3일간
- 장소 :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부스3310)
- 전시품목 : LM Guide, Ball screw, 하모닉드라이브, 작동데모기

• **김재원 한국프렌차이즈신문 회장**은 최근 '한국프렌차이즈신문'을 창간하여 매호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서 회원들에게 기증하고 있다.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거처 장관)**은 최근 <일본 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 한·일 공동의 집짓기를 꿈꾸며>(한길사)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1945년 이후의 한·일 근대화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한일관계미래를 전망한 저서이다.



• **윤영상 (주)다산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중국 청도에서 재중국한국 공예품협회(회장 박상제)로부터 '올해의 공예인상'을 수상했다. 윤 회장은 한중수교 이전인 1990년 청도에 진출한 이래 개척자적 자세와 불굴의 정신으로 많은 역경을 극복하여 한국 장신구 공예산업이 중국에서 자리잡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황석희(법무법인 우현지산 상임고문) 회원**의 장녀 경희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2월 2일(금) 오후 1시
- 장소 : 양재온누리교회(구, 햇불선교센터) 사랑성전

■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신년하례회 겸 1월 정기모임을 지난 1월 29일(월) 가졌습니다.

• **다락회(회장 박세직 / 총무 우창욱)**는 신년하례회를 지난 1월 9일(화) 서울클럽에서 부부동반으로 갖고, 조동춘(밝은가정협의회 회장) 박사를 모시고 "아름다운 인생관리"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김창호)**는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1월 16일(화) 명동 로얄호텔에서 가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총무 전병문)**는 신년하례회 겸 임원 이·취 임식을 지난 1월 29(월) 역삼동 리더스클럽에서 가졌으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상래 회장(성도GL 사장의 뒤를 이어 아래와 같이 신임 운영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회 장 - 최우영 (성원개발 사장)
- 부회장 - 신숙혜(우먼타임스 사장), 전병문(리더스홀딩스 사장)
- 총 무 - 황진수(에어랩 사장), 강은성(화백)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 사무총장 이두호)**의 1월 정기세미나 겸 신년하례회는 조순 명예회장의 주제발표로 지난 1월 30일(화)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순 회장께서 지난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베이징 국제 문화창의사업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린 '문화창의산업발전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신 내용을 토대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차이나클럽을 위해 수고해주신 이두호 사무총장(키스뱅크 사장)은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관계로 차이나클럽의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그간의 차이나클럽 운영소감과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이종원 회장	2월 1일
VERONICA CASS	오경근 원장	2월 7일
KOREA ACADEMY		
한국폴리텍1대학	이상덕 학장	2월 15일
GE KOREA	이채욱 회장	2월 22일

■ 신규회원



이상덕 한국폴리텍1대학 학장(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38번지
- 전 화 : 02-2001-4100
- 팩 스 : 02-2001-4180
- 소 개 : 공공직업훈련을 전담해 온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총 43개 기관이 7개 지역거점대학, 4개 특성화 대학으로 통합하여 11개의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변경



유선종 영해해운 사장(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100 세종빌딩 604호
- 전 화 : 02-730-8839
- 팩 스 : 02-739-2796
- 주요사업 : 국제선박 중개, 비즈니스 컨설팅
- 추 천 : 유항구 회원(영해해운 회장)



한영희 예성화랑 대표(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92-1
- 전 화 : 02-738-3630
- 팩 스 : 02-722-5959
- 주요사업 : 유럽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외화전문화랑
- 추 천 : 유상옥 회원(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가입해주신 회원님과 추천해주신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2-2203-3500 · 팩 스 : 2203-1974

■ 연구원 소식

• 문화지식병영을 통한 인재육성사업

- 공군본부 '하늘사랑아카데미'

본원은 문화지식병영사업을 통해 군대를 지식과 학습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군본부와 5군단에 이어 공군본부와 함께 '하늘사랑아카데미'를 개강하였습니다. 새로운 군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이 사업은 각 부대와 협력 하에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2006년 12월 28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군참모총장 주관 하에 과장급(대령) 이상 장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장만기 본원 회장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군의 성공적 변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양병무 원장 최고경영자연찬회 특강

양병무 본원 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영혁신특강의 강사로 초청되어 "리더십과 혁신사례-장성군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2월 8일(목) 조선히 호텔에서 강연을 갖습니다.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는 2월 7일 ~ 9일까지 3일간 기업·단체·공공기관의 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한명숙 국무총리, 유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밥 코코란 GE크로톤빌 연수원장, 네모또 지로 일본경제단연합회 명예회장 등 최고의 연사들과 함께 합니다.

• 박대성 한국화가 작품 인간개발연구원에 기증

제1473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해주신 박대성 화백은 2007년 창립32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본원의 발전과 문화지식병영사업의 취지에 동참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작품 1점을 사무국에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 지자체소식

• 대전 중구아카데미 개설

대전시 중구청(청장 이은권)과 본원은 지방자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구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1월 18일 윤방부 박사를 모시고 "윤방부의 건강생활법"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이 개최되었으며, 아카데미를 통해 군민과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함께 대전 중구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제3군야전군사령부 선봉혁신아카데미 개설

육군 제3군야전군사령부(군사령관 백군기)와 본원은 지식정보화시대

에 부합하는 장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 자기계발 동기부여, 혁신적인 병영문화 조성 등을 위해 '선봉혁신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개강식은 1월 24일 장만기 본원 회장의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주제강연으로 열렸으며, 향후 첨단지식과 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 서구미래아카데미 개설

부산시 서구청(청장 박극제)과 본원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1월 25일 개강식은 김홍식 전 장성군수를 개강강사로 모시고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이야기"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서구미래아카데미는 앞으로 월 1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와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육군본부, 국방부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육군본부는 지난 1월 26일 국방부가 주관한 '국방부 혁신평가결과보고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방부 혁신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예하 각 군 및 국직기관 등 27개 건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혁신전문평가위원회에 의해 기관장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및 문화, 혁신 공동과제 및 고유과제 추진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육군본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및 300만원의 부상을 수상하였다.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 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1-3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LMI & YOU

성공은 마음가짐의 결과요 습관의 결과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켄센 교수가 민족별 지능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놀라운 것은 민족간의 지능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아메리카인디언 부족 정도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전국 유명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며,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임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대인들의 우수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유대 5천년의 역사는 연속되는 시련의 역사였다. 시련을 이기고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제2차대전 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조국이 없는 유대인들이 오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개개인의 머리와 마음속에 강한 정신력을 불어넣어 스스로 자기혁신능력을 배양하도록 몇 세대를 거쳐 고통받고 훈련해 왔고, 그 전통을 정신적 유산으로 면면히 이어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유아기와 유년기의 성장과정에서 교육에 투자한 결과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련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곳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진 것이다.

얼마 전 KBS에서 '마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ATTITUDE IS EVERYTHING' 일체유심조라는 2000년 전에 성현들이 했던 난해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내용으로 인간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좌우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핸드폰 다루듯이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실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로부터 제2의 유대인으로 불리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그 동안 학력과 성적이 실력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도 학력파괴의 인사 관행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진정한 실력은, 진정한 성공은 마음가짐의 산물이며 습관의 산물이다. 더욱이 마음가짐과 습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과성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원리를 실제 변화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툴이 필요하다.

한국엘엠아이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는 기업의 CEO,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대학교수, 군 장성, 목회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투자대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집중과정 수료식



- 일 시 : 1월 6일(토) 오전 9시 30분
- 대 상 : EPL 집중과정 수료자
- 장 소 : LMI 본사교육장
- 지 도 : 안효열 마스터코치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코칭(16주간)과정 개강

- 일 시 : 1월 25일(목) 오후 7시~9시 30분
- 대 상 : 각 분야 리더,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 장 소 : 한경아카데미 3층 교육장(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 한국LMI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EPL 코칭과정'을 개강했다.

• 본사에서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7시에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프로그램 75기, 76기 교육이 진행 중이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시

Big Dream&Success 모임안내

1. LMI EPL과정 KICK-OFF MEETING

- 일 시 : 1월 26일(금) 오후 2시~6시
- 장 소 : LMI 안국동교육장
- 지 도 : 공한수 원장
- 참가대상 : 개인, 단체, 직장인

2. 제40차 LMI 수료자모임

- 일 시 : 2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9시
- 장 소 : LMI 안국동교육장
- 강 사 : 이재규 전 대구대 총장
- 주 제 : 피터 드러커의 지식의 의미변화에 기초한 기업과 경영의 역사
- 참가대상 : 가족, 친지, 관심 있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Tel. 02-774-3230 / www.whynotyou.co.kr



여유로운 식탁이 건강을 약속한다

이미숙 건강한 식탁 대표

현대인은 바쁘다. 초고속 열차와 비행기, 그리고 인터넷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바쁠까? 세계미래회의(WFS) 티머시 맥 회장은 “미래에는 시간이 가장 값지고 희귀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나?

결국 이렇게 바쁜 현대인에게 먹으면서 소비하는 시간은 너무 아까운 것이 되어버렸다. 사정이 이러하니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은 그야말로 구세주. 획기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 그 구세주가 우리의 건강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

바쁜 현대사회 인스턴트식품 시장은 꾸준히 증가 인스턴트식품은 무엇보다 중독이 문제

물을 부어 끓이거나 전자렌지에 데워서 바로 먹는 반조리식품 혹은 완전조리식품 등 소위 인스턴트식품 시장은 나날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 식탁에서 인스턴트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인스턴트식품을 ‘몸에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이 간다. 그러나 한두 번 먹다보면 그 맛에 익숙해지게 된다. 소위 인스턴트식품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 때부터는 별로 바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인스턴트식품을 찾게 된다.

이처럼 인스턴트식품이 중독성(?)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스턴트음식이 게으른 인간들을 더더욱 게으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번 두 번 사용하다 보면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몇 시간씩 ‘조리’라는 지루한 노동에 얽매어있기 싫어지게 된다. 인스턴트식품 중독의 두 번째 이유는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혀는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맛이

강한 인스턴트식품을 먹다가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맛이 없다고 느껴 거부할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스턴트식품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 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가공시에 첨가되는 각종 화학물질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방부제를 비롯하여 예쁜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발색제, 색소, 향미를 돋우기 위해서 첨가하는 향료, 화학조미료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식품제조업체의 입장은 하나같이 '허용된 첨가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기간 고농도로 섭취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즉, 한달 혹은 일주일에 한번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것은 무해할 수 있지만 매일 매끼를 인스턴트식품으로 때우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는 각종 성인병 유발 기능성 식품만으로 건강 지키려해서도 안돼

최근에는 웰빙 열풍에 편승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도 많다. 이름만 '웰빙'일뿐 내용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유기농'이라고 그럴듯하게 재료를 소개했지만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재료 중 단 한 가지만 유기농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수십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다고 써있지만 정작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속임수도 있다.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지방은 너무 많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섬유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죽하면 패스트푸드를 '쓰레기 같은 음식(정크 푸드, junk food)'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영양균형이 깨진 패스트푸드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느새 뱃살은 건잡을 수 없이 쌓이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등 수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소위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많은 질병들이 요즘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려서부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등장한 기능성 식품들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기능성 섬유유료, 기능성 스포츠음료에 하다못해 껌까지도 기능성 식품시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유익한 성분이 늘상 먹는 식품 중에 강화되어 있다면 적어도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선전에서 떠들어대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부 기능성 식품의 경우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 성분을 첨가하였거나, 효과는 입증되어도 할지라도 첨가량이 워낙 적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기능성 식품의 또 다른 문제는 기능성 식품을 만병통치약 내지는 보약

쯤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저 건강에 좋단니까 나에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 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먹어서 손해볼 것 없다 생각하고 무작정 먹어댄다. 그러나 기능성 식품의 남용이 정상적인 식생활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야채를 싫어하는 경우 섬유유료 한 병을 마시고서 안심하고 야채를 먹지 않는다면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은 부족할 수 있다.

분명 기능성 식품의 이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리고 분명 기능성 식품의 이용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나침은 경계되어야 한다. 기능성 식품의 범람은 현대인의 건강 염려증과 조급증, 그리고 게임의 합작품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 너무 쉽게 건강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닌지.

현대인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식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바쁘니 깨알같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해볼 리도 만무하다. 그러나 각종 방부제, 보존제, 착색제, 발색제, 향료, 조직감개선제 등 가공식품에 빠지지 않는 식품첨가물들은 과잉 섭취시 아토피에서 암까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편리함을 버리고 진정한 슬로우푸드로 돌아갈 때 이제 조금만 여유로워지자

결국 그 동안 우리는 편리함과 건강을 맞바꾼 셈이다. 건강을 위해 이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편리함을 과감히 버리고 슬로우푸드(slow food)로 돌아가야 한다. 슬로우푸드란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fast food)의 반대개념이다. 안티 패스트푸드라고나 할까? 그러나 사실 그게 다는 아니다. 1986년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이탈리아 로마에 진출하자 맛을 표준화하고 전통음식을 소멸시키는 패스트푸드의 진출에 대항하여 식사, 미각의 즐거움, 전통음식의 보존 등의 가치를 내걸고 슬로우푸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슬로우푸드란 '제대로 된 식사'에 더 가깝다.

요즘처럼 바빠 돌아가는 세상에 슬로우푸드라니. 어쩌면 정신 나간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동바통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툭 터놓고 말해서 그게 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말이다. 아침은 씨리얼에 점심은 패스트푸드로 때우고, 저녁마저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과연 사람답게,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자. 손쉽게 건강해지려는 생각일랑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하루아침에 모두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식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식탁은 더욱더 여유롭고 건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편리함과 바꾼 우리의 건강, 이제는 다시 되찾아 올 때가 되었다. **人間**



이미숙 대표

1968년 생으로 서울여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 및 병리학교실 선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각종 방송 및 지자체, 기업 등에서 활발한 강연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영양상담실 '건강한 식탁'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빠서요

조연환 농협경제연구소 소장 / 전 산림청장

지난 연말 어느 새벽이었다.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기로 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벽공기가 제법 추웠지만 택시 안은 답답하고 역한 담배냄새마저 풍겼다. 창문을 열고 싶을 정도였다. 교회까지 가는 데는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눈을 좀 붙여 볼까하고 뒤쪽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한 5분이나 갔을까, 택시가 계속 경적을 울리고 급커브를 도는 바람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좀 편안하게 가려고 탄 택시인데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택시는 신호등을 거의 무시하며 질주하고 있었다. 버스가 있으면 곧바로 추월하고 다른 택시가 열른 양보하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며 무슨 응급한 환자라도 태운 차량처럼 급하게 차를 몰았다. 뒷좌석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잠도 확 달아났다.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한 마디 할까 하다가 꼭 참았다. 며칠 전 퇴근길에 탔던 택시의 기사 이야기가 생각나서였다.

택시기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날 저녁 택시기사들의 고달픈 삶이 더욱 깊이 이해되었다
안전운전과 친절을 기대할 수 있게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저녁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오랜 침묵이 부담스러워 “요즘 어떠십니까?”라고 말을 건넸다. 기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운전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납금도 못 버는 날이 자주 늘어난단다. 사납금을 다 채우면 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그나마 회비나 부담금을 공제하고, 또 사납금을 못 채우는 날을 대비한 비상금을 좀 떼어내면 한 달 수입은 70만원에도 못 미친다지 않는가. 그러니 어려운 생활은 물론이고 두 아이 고등학교 학비 마련도 힘겨울 수밖에. 그도 한 때는 작은 회사를 경영했는데 IMF 때 부도가 나서 택시기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의 고달픈 삶과 애로점이 짧은 대

조연환 소장

1948년 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에서 국방관리 석사학위를 받았다. 67년도부터 산림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사유림지원국, 국유림관리국 국장, 산림청 차장을 거쳐 산림청장을 역임했다. 2000년 시민정신사 신인당선으로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으며, 현재 생명익숲국민운동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회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힘들게 일하는 기사들이 하루 속히 좀 더 잘 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저녁 택시 안에서 대화는 생각나서, 마치 곡예를 하듯 거칠게 운전하는 기사에게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을 꼭 참고, 대신 두 손으로 뒷좌석 손잡이를 더욱 꼭 움켜잡은 채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기만을 기도했다. 차라리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면 좋았을걸 하며 후회도 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택시는 크게 요동을 쳤다. 몸이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사에게 최대한 점잖은 말투로 한 마디 했다.

“기사님 왜 이렇게 빨리 달리세요?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돼요?”

“교대 시간이 다 돼서요. 교대하는 장소가 반대쪽에 있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쳐다보는 듯하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여전히 도로를 전력질주하고 있었다.

“기사님, 아무리 교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손님을 태웠으면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주 불안합니다. 좀 천천히 가주세요.”

이번에는 아주 정색을 하고 정중하게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택시기사는 다시 뒷좌석을 바라보더니 차를 천천히 몰았다. 평소 내가 운전을 하면 30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인 교회를 20분도 채 안 되어 도착했다. 택시비를 드리고 잔돈은 가지시라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기사님, 바쁘시더라도 안전운전 하세요.”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에는 분명한 거래 관계가 있다. 기사는 요금을 받고 손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모셔야 할 의무가 있고, 손님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다. 교대 시간이 빠듯하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난폭하게 운전하여 손님에게 극도로 불안감을 주는 것은 택시기사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다.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날 아침, 새벽 기도시간과 조찬 세미나에서 자꾸만 택시기사 생각이 났다.

과연 나는 어떡했던가?

공정한 일처리와 작은 배려가 민원인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나의 청렴결백을 위해 민원인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다.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때론 적은 보수에도 불평 없이 일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과 공무원의 대답은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나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막상 공직을 마치고 나니 아쉬움이 많다. 재임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로 만나자고 하는 민원인들을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으려 했다.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방문을 하면 공식적인 업무 이외의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해받기 싫어서였다. 행여 유혹에 빠질까봐 우려하였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귀찮게 할 것 같은 선입견에 의도적으로 멀리한 적도 있었다.

그분들이 공무원인 나를, 특히 그들이 볼 때 고위공직자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며 신경을 쓰고 준비하였는가를 이렇게 공직을 떠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스스로 찾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렵게 찾아온 기업인이나 민원인을 친절하게, 좀 더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어쩌면 청렴결백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민원인을 멀리 한 것 같아 죄스럽기도 하다.

공직에서 물러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공직을 떠나 한적하게 살고 있는 시골집에까지 찾아오셨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여쭙어 보았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찾아 오셨습니까? 전화만 주셔도 감사한데요.”

“아닙니다. 청장님, 청장님 재임 시에 저희 협회를 등록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관련협회 모임에서 특별히 저희 협회를 지명하여 인사를 시키면서 막내동생이 협회니 잘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나 기업인이 공직자인 내게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실무자에게 또는 일선기관에 지시해 주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당연히 되는 일을 처리해 주는 것, 조그만 배려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민원인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공직을 끝낸 이제서야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것이다.

새벽의 택시기사가 교통법규나 손님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교대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기업인의 면담보다 자신의 평판에 연연하는 것이나 본말이 전도되기로 따지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늘도 내 귓가에는 택시기사의 한마디가 맴돈다.

“바빠서요” **人間**

달러와 미국경제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경제부총리



나. 미국의 쓰임 쓰임이 너무 헤프기 때문에 달러가 줄곧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그것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디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가. 우선 소득에 차지하는 개인의 소비가 너무 많아서, 개인 저축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난 수년간의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부문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소비성향은 줄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국방비가 엄청나다. 끊임없이 신무기의 개발과 우주항공 산업 등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이른바, '신보수주의(neo-con)' 라는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경제정책, 대외정책의 기초를 이룸에 따라, 달러를 쓸 일이 더욱 많아졌다. 특히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에 이라크전쟁을 시작한 후로, 미국은 쓰임 쓰임이 늘어서 강한 달러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화폐가치의 하락은 그 나라의 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서, 항상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정책을 써왔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당시의 흑자국인 일본의 엔화를 절상시킴으로써, 달러화의 절하를 막았다. 지금은 그런 수단이 먹힐 수 없다.

앞으로 달러의 하락에 제동이 걸리자면, 미국의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꼭 달라지리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시는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후로 이라크전에 관해 정책기조의 변경을 시사했지만, 결국 미군을 증파하는 결론을 내렸다. 부시의 오기가 이라크전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외신에 의하면, 부시는 바그다드에 세계최대의 대사관을 짓고 있다. UN 부지의 10배가 되는 면적에 사주에 요새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인원도 세계 어느 대사관보다도 더 많게 배치하리라 한다. 이 대사관은 세계적인 명물이 될 것 같다. 민주당 역시 지난번 선거에서 압승했다고는 하지만, 대외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 부시정권은 민주당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거시, 미시, 그리고 무역정책 등에 대한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달러는 계속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이라크로부터의 철군, 재정 금융의 긴축 및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완화돼 달러약세 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미국 경제, 그리고 외교정책은 이래저래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人間



최근 보도에 의하면 마틴 펠드스틴 교수(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고문단 의장이었고, 미국경제연구소 소장, 하버드대학 교수)는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앞으로 10년 동안 약 20% 정도는 더 떨어진다고 했다.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유로화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달러가 유로에 비해 약 30% 정도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펠드스틴의 견해는 오히려 보수적인 것 같다.

일국의 화폐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가치의 변동 방향을 짐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알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펠드스틴이 말한 대로 달러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왜

고객을 기쁘게 하는 서울도시가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두손을 모은
공경의 마음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



IBK 기업은행

4800만의 'I', 나를 최우선 하는 은행으로
기업은행이 새출발합니다

I를 맨 앞에 놓는 은행, IBK

나의 희망을 빌 게이츠의 연설처럼 귀 기울여 듣는 은행
나의 목표를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처럼 꼼꼼하게 체크하는 은행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성공을 무엇보다 맨 앞에 놓는 은행

대한민국의 성공 파트너 기업은행이
이제 4800만의 '나'를 맨 앞에 놓는 은행,
IBK기업은행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